

특별법 시행 20년에도… 성매매 영업 ‘성행’

변화가 등지서 신·변종업소 ‘활개’
광주·전남서 연 100건 이상 적발
여성단체 성매매추방주간 운영해
“성매매 사범 단속·처벌 강화해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20년째를 맞았지만, 도심 변화가 유흥업소와 SNS 등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관련 법 개정과 단속강화 등 성 관련 범죄 완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 행위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9월 23일 시행돼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변화가와 SNS를 중심으로 신·변종업소 등이 활개 치는 등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변화가 거리에는 성매매营业을 암시하는 전단이 흩뿌려져 있었다. 전단에는 낫 뜨 거운 음란문구와 사진, 영업시간과 전화 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술집 골목을 서성이던 성매매 호객꾼들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권유하며 불법 호객행위를 이어갔다.

웹사이트와 SNS 등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별 성매매 업소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사이트 내에서는 업소별로 성매매 상대 여성의 사진과 비용 등 관련

정보를 노골적으로 공개하며 영업을 이어 가는 모습이었다.

경찰의 감시망에 성매매 사범들도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된 성매매 범죄 건수는 광주의 경우 △2021년 69건 (검거 267명) △2022년 128건 (검거 314명) △2023년 89건 (검거 221명)이며, 전남은 △2021년 47건 (검거 179명) △2022년 58건 (검거 143명) △2023년 37건 (72명) 등이다.

다만 알선자 등이 점조직 형태로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거나 불건전 마사지·노래방 등 변종 영업을 펼치고 있고, 주로 해외기반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완벽히 추적·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성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란희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상징적인 집결지의 축소와 처벌 규정 마련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성매매 영업의 80%에 해당하는 유흥업소와 신·변종업소 등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대상 성구매 조범의 경우 처벌 방지 교육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등 처벌이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다. 해외 기반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구매·알선자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현장 교육을 펼쳐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성착취 범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19일부터 7일간 성매매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와 (사)광주여성연대 등은 20일 오후 동구 금남로 지하가서 근절 캠페인을 열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고,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가족단위 시민들이 지난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서 아스팔트 부르스 이동형 거리극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청소년 도박 급증에도 전남지역 전문 상담기관 없어

올해만 광주 17명·전남 28명 입건
전남에 지역센터·전문기관 전무
“치유 위해 상담 시설 확충해야”

전남에서 형사 입건된 도박 범죄소년이 급증했지만 지역에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지역에서 형사 입건된 도박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총 56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명에서 2022년 1명, 2023년 6명으로 줄었다가 올해(8월 기준) 28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은 2021년 6명, 2022년 1명, 2023년 6명, 올해 8월까지 17명으로 총 30명에 달한다.

사·도경찰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 148명 △서울 75명 △전남 56명 순으로 많고, 각 지역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인구 대비 비중으로 보면 전남, 제주, 광주 순으로 높다.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2022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르면 강도범죄 소년범

의 범행동기로 유희·도박비 마련(26.8%)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 도박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남지역에는 청소년 도박 상담과 장기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전화 1336)이나 넷라인(온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의 경우 지역센터 1곳과 전문 상담기관 1곳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20년 72명에서 2021년 63명, 2022년 77명, 2023년 163명, 올해 7월 말까지 125명 등 총 500명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았다.

전남은 지역센터와 전문 상담기관이 없는 탓에 상담을 신청한 9명의 청소년이 타 지역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 의원은 “사이버도박 위험군 조사대상에 모든 학년을 포함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청소년이 도박 치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시설을 확충하고 치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주말 사이 큰 비에도 광주·전남 화재 다수 발생

지난 주말 사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이어졌다.

선박이나 창고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나기도 했다.

22일 폭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께 신안 안좌면 복지선착장에 계류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또는 해양 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형 선박 1척 전소, 1척 반소, 1척 좌초, 2척 그을림 피해 등 5척의 선박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와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3분께 나주시 이창동의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규모의 창고 건물과 내부에 있던 상품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36명의 인력을 투입, 화재 발생 약 40분만인 이날 6시3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도 잇따랐다.

지난 20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9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항병원 건물 5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5분만에 자체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

으나 병원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벽걸이 에어컨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7시44분께 광주 호남대학교 단과대학 7층 학습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60명과 장비 18대를 투입, 화재 1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해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서류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컴퓨터, 배터리 등이 과충전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던지기 수법’ 광주서 마약 유통한 20대 구속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20대 마약 전달책이 구속됐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은 마약을 소지하고 매매에 관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광주 서구 화정동 주택가에서 ‘누군가 물건을 몰래 숨기는 모습이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위해 일대를 돌아다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여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서구·동구 일대 원룸을 돌며 배전함·소화전 등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을 운반하고 판매자들로부터 1건당 2만원 상당의 금전을 챙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상아 기자